

고등학교 새 문법교과서의 理論과 指導

최 규 일*

머 리 말

영국의 과학자 뉴턴(1642~1727)은 당연한 자연현상을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연구함으로써 ‘萬有引力’을 발견해 내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언어(language)를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면, 언어에는 설명되어야 할 많은 문법적인 현상(現象)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인간에게 言語가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언어 덕택으로 지금과 같은 인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언어(human language)에는 창조성(creativity)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쓰는 문장의 대부분이 새롭고 전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인간언어에는 새로움(novelty)이 있다. 한 개인이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배운 문장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

* 국어교육과 조교수, 학과장

※ 이 글은 제주도 중등국어교육연구회 주최로 제주도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1986. 1. 24.] 내용을 다시 보충 손질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과는 다르다. 언어숙달, 또는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이란 배웠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문장까지도 生成(generate)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간언어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새 문법 교과서의 理論을 가능한 쉽게(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 요점을 記述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諸般 文法現象에 대해 소개 하면서, 아울러 文法理論과 문법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함이 발표 목적이 된다.

記述의 편의상, 1. 언어와 문법, 2. 문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3. 새 문법 교과서의 이론과 주요 특징, 4. 지도 방향 順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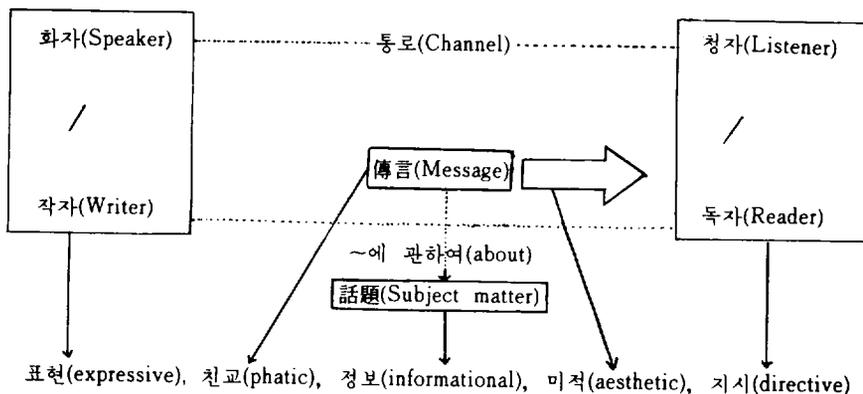
1. 언어와 문법

1-1. 왜 언어를 연구하는가? 촘스키(Chomsky)는 언어가 인간의 거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언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 ‘언어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 ② ‘언어 습득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어 이론’은 자연(즉, 인간) 언어를 정의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다루게 되며, ‘언어 습득이론’은 어린이가 어떻게 그들의 母語를 습득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언어 이론’의 개발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그 첫 단계는 개별언어[한국어, 영어 등]의 문법을 세부적인 記述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이를 ‘개별문법(particular grammar)’의 연구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는 개별문법의 모두가 共有하고 있는 공통적, 보편적 속성을 추출하는 것인데, 이를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연구라 한다. 이는 언어의 보편성에 대한 추구다. 그리고 촘스키는 언어능력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① 話用的 능력과, ② 文法的 능력이다. 화용론은 우리가 문장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배경 지식이나 개인적인 신념과 같은 非言語的인 정보가 작용하는 규칙을 다루게 된다. 이에 비해 문법적 능력에는 언어적 능력의 세 주요 유형이 포함되는데 통사적, 의미론적, 음운론적인 능력이 그것이다. 결국, 문법적인 능력에는 두 가지 유형의 直觀이 있다. ① 통사/의미/음운론적인 적격성, 혹은 부적격성에 대한 직관과, ② 통사/의미/음운론적 구조에 대한 직관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일련의 통사, 의미, 형태, 음운의 규칙을 배우는, 즉 언어의 규칙을 배우는 것이 된다. 언어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능(구실)을 알아야 한다.

G. N. Leech(1974)¹⁾는 Semantic에서 언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unction	Orientation Towards
expressive	: speaker/writer
phatic	: channel of communication
informational	: subject-matter
aesthetic	: message
directive	: Listener/Reader

또한 R. Jakobson(1960)은 다음과 같은 언어의 6가지 요소(factor)로써 언어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① context(subject-matter)
- ④ message
- ② addresser(speaker) ————— ③ addressee(hearer)
- ⑤ contact(situation)
- ⑥ code

1) G. N. Leech(1974), Semantic, pp.40-42.

이 언어의 6요소를 근거로 하여, 언어의 의미 기능에서는 ① 지시적 기능 (referential function), ② 정서적(emotive)기능, ③ 명령적(conative) 기능, ④ 미시적(aesthetic) 기능, ⑤ 친교적(phatic) 기능, ⑥ 메타적(meta-lingual)²⁾ 기능을 들고 있다.³⁾

1-2. 文法 연구는 우리가 맹목적인 分類學이나 이론 습득의 암기가 아니라, 말을 만들어 내고 [生成하고], 문장을 바르게 표현하여, 말과 글을 올바르게 쓰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항상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단어를 그릇된 위치에 놓거나 혹은 꼭 있어야 할 단어를 빠뜨리거나 혹은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등, 실제로 언어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인간이 우리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종종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능력과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언어능력이란 다시 말해서 토박이(native speaker)의 자기 언어에 대한 지식이며, 언어遂行(performance)이란 토박이나 자기의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언어수행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제적 언어 사용을 말한다.]

우리는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은 Saussure의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구별⁴⁾과 관련되어 있다.

2) 'meta-lingual'에서 '메타(meta)'는 '高次, 後段, 上位, 설명' 등으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흔히 '메타 언어'로 부르고 있다.

3) R. Jakobson(1960), Linguistics and poetics, In T. A. Sebeok(ed) (1968) 拙稿(1985), 한국어 화용론의 記述과 의미 해석, 새결 박태권선생 회갑기념 논총 참고

4)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은 씨니피앙(signifiant)과 씨니피에(signifié)로 보고 있다.

[랑그(langue): 언어활동 능력의 사회적 소산, 심리적·물질적 현상.

[빠롤(parole): 랑그의 개인적 행사이다. 화자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utterance) 행위이다. 생리적·물리적 현상.

※ 이 랑그와 빠롤이 합하여 언어(language)를 구성한다.

[씨니피앙(signifiant): 音記, 의미하는 것. 청각 형상

[씨니피에(signifié): 意記, 의미되는 것. 개념(concept)

왜,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별해야 하는가? 언어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과 인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언어학도 언어가 위치하는 환경 및 연구 목적에 따라서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심리언어학(psycholo-linguistics), 민족언어학(ethno-linguistics)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 언어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어떤 특정의 언어가 아닌 자연언어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인간의 언어능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언어능력은 언어수행과는 달리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記述하는 사람의 기본 임무는 언어수행에서 나타나는 언어재료를 토대로,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언어의 구성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의 文法(grammar)은 그 언어의 理想的인 話者가 保有하고 있는 本有의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모든 문장을 生成(generation) 할 수 있는 어떤 有限體制(finite system)를 습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습득한 이 有限體制를 '언어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언어능력이 바로 그 언어의 문법이 되는 것이다.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와 마찬가지로 인간언어에도 무한한 수의 문장이 있으나 이들을 생성할 수 있는 원리는 有限體制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이란 언어에 있는 무한한 수의 문장을 직접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들을 生成할 수 있는 有限의 문법 체제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언어의 文法이란 그 언어의 가능한 모든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文法規則(grammatical rule)의 有限集合(finite set)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 이 씨니피앙과 씨니피에는 서로 喚起관계에 있는데, 언어기호는 이들의 결합이다.

〈참고〉 Ullmann은 씨니피앙은 name(명칭)에, 씨니피에는 sen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Bloomfield은 언어 의미의 본질을 자극(Stimular)과 반응(Response)의 관계로 보았으며,

Chomsky에서는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의 언어 연구를,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의 구분으로 나타낸다.

그리하여, 筆者는 文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文法은 언어 생활의 길잡이로서, 말과 글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적는 記述(Art of writing and speaking correctly) 方法을 배우는 것이다.

② 文法은 언어의 현상(규칙)을 찾아내어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다.

③ 文法은 언어의 옳고(적격성), 그름(비적격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④ 문법은 언어의 질서다. 이 질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즉 일정한 규칙에 의한 언어의 질서를 문법이라 한다.

⑤ 文法은 언어를 어떠한 문법 범주로써 언어를 체계화하고 記述하는 것으로, 언어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現象이다.

2. 문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文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대강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가 언어의 문법을 통해서 그 언어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 우리가 이미 말하고, 듣고, 쓰고,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능력을 記述하고 설명하는 것이 文法이라고 할 수 있다.

‘文法論’이란 이러한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언어 [이를 메타언어(meta language)라 한다.]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들 도구언어를 이용하여 문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체계 [또는 이론]이다. 이때 이러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의 언어를 대상언어(object language)라 한다.

1) 문법의 두 분야

문법[grammar(영), grammaire(프), Grammatik(독)]이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grammatikē에서 유래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글자나 문자를 읽거나 쓰는 방법’이었다.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까지 문법은 언어 연구를 총칭하는 학문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서는 單語의 品詞⁵⁾를 중심으로 단어의

5) 기원전 2~3세기경 문법가 드니스드트라스는 전치사, 대명사, 분사, 부사, 관사, 접속사, 명사, 동사 등의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의 각 品詞들을 분류하였고, 그는 최초로 체계적인 문법서를 지었다.

형태 변화인 굴절(inflexion)과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다루는 통사론(syntax)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비중은 굴절을 다루는 형태론(morphology)에 더 치중되었었다. 이처럼 문법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눈다. 단어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형태론과 문장내에서 이들 단어들의 상호 관계 및 구조를 연구하는 통사론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문법의 분야에, 언어의 최하위층인 음운론을 비롯해서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까지 포함시키는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두 분야의 구별을 하지 않는 학자도 있고,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형태통사론(morpho-syntax)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의 기술에서 문법의 개념을 좁게 잡아 발화(utterance)를 문(sentence)과 구별하여 발화와 화맥(context) 등을 화용면으로 돌리고, '문'을 최대 분석 단위로 하는 '文' 문법(sentence grammar)에서 벗어나 담화(discourse)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화용을 배제하는 문법 기술에서 벗어나, 통사의미론(Semantax)을 화용의 여러 가지 樣相을 폭 넓게 다룰 수 있는 통사-의미-화용론(pragmantax)의 統合理論으로 정립해 나가려는 추세도 있다.

2) 文法의 單位(Unit)

전통적으로 문법 연구의 기본 단위는 단어(word)였다. 문법은 단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형태상의 변화와 통사적 기능을 주로 연구하였다. 단어의 형태상의 諸變化는 단어의 내부 구조상의 변화이다. 오늘날은 이 분야의 연구를 형태론(morphology)라 한다. 이 morphology의 어원은 형태(form)를 뜻하는 그리스어 morphē이다. 그런데 이 단어(word)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가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문법적으로 有意味한 가치를 지니는 문법의 最小單位를 형태소(morpheme)라 한다. 일반적으로 형태소는 문장내에서 또는 단어내에서 반복해서 出現하고, 일정한 분포와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어들 또는 형태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文章(sentence)을 구성한다.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있을 수 있다. 가령, 가라!, 누구냐? 등에서 볼 수 있음] 이들 단어들이 맺는 결합관계 및 있을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가 통사론이다.

문법의 단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중심으로 그 하위, 상위 단위의

결정 및 이 단위들이 단어 또는 문장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또 다른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단어가 그 내부의 각 요소들 사이에 갖는 관계인 내적구조와 외부와의 다른 단어들과 맺는 관계인 외적구조가 문법구조를 이룬다. 이 두 구조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1) 단어(word)

전통적으로 단어는 문법 기술의 가장 기본 단위였다. 언어학적인 단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준은 주로 의미 내지는 단순히 걸로만 드러나는 형태에 기초를 둔 것이다. 단어를 단어라는 단위로 확인시켜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단어란 문장처럼 명백한 한계를 갖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언어를 기억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기억의 단위가 단어라는 것이다. 음절 또는 형태소,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단어의 뚜렷한 일반적인 형식적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Bloomfield는 “단어를 최소 자립형태(minimal free form)”라고 형식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독립성 또는 자립성과 안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단어는 그 자체로써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또 문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명사[것, 수, 바 등], 조사 등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의 實體를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① 단어의 分離不可性, 또는 단어의 내적 응결성(cohesion) 등을 들고 있다. 단어 중간에 임의로 休止(pause)를 개입시키거나, 중간에 다른 요소를 삽입시킬 수가 없다. 더우기 단어내의 요소를 임의로 재배열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단어는 다른 단어와 서로 분리되면서 위치상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② 단어를 언어적인 실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기호학적 기능이다. 기호로서 단어는 씨니피앙과 씨니피에의 결합체로서, 상위층위인 문장내에 통합이 되면서 다른 단어와 代置가 가능하다. 동시에 하위층위인 音素로 분할이 된다. 이처럼 代置와 分割이 동시에 가능한 형식적 요소로 단어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음소의 기호학적 기능이 없다. 또 상위층위인 문장을 생각해 보면, 문장은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은 가능하나, 이들 문장은 대치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대치’와 ‘분할’ 두 방식을 언어 분석에 사용한다면, 이 두 가지 형식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요소는 단어뿐이다.

③ 國語에 있어서 특히 나타나는 음운론적 표지(mark)인 잠재적 휴지가 단어의 경계를 나타내 준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말을 할 경우, 단어내의 중간에 임의로 휴지(pause)를 둘 수 없고, 단어를 단위로 하여 휴지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말을 머뭇거리거나 의도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④ 모조음화가 단어의 경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④는 음운론적 현상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文法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이 단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포괄성 있는 형식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의미적 단일성이라든지 또는 음운론적 현상들에 의거하여, 이들 단어들을 문법적 단위로써 확정하는 데 이차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를 문법 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수는 없다. 각국 언어의 문법체계에 따라서 그 언어의 문법체계에 보다 적합한 기준을 발견하고, 적용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2) 형태소(morpheme)

단어는 더 작은 단위로 분석이 되는데, 이 작은 단위들을 형태소라 한다. 이때 쪼개진 작은 단위로 문법적으로 有意味한 최소단위(minimal meaningful unit)를 형태소라 한다. 이때 단어에서 최소 단위로 나누어지는 두 요소 가운데 ‘book, cat, horse’ 등을 어휘 형태소(lexical morpheme), 또는 어휘소(lexeme)라 하고, books, cats, horses에서 ‘-s, es’ 등을 문법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 또는 그냥 형태소(morpheme)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단소(monème)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가령, “man-men, this-these, run-ran, come-came, catch-caught”는 어휘소+형태소 방식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또한 “sheep-sheep, cut-cut(과거형)”에서는 이 두 요소에 있어서 문법적 복수 표지나 과거 표지는 없다. 이 경우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러한 난점의 극복을 위해서 추상적인 단위로써 형태소와 그 구체적 형태 표지인 형태(morph)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수가 있다. 형태소는 음소처럼 언어형

식에 속하는 단위이고, 형태(morph)는 음성처럼 이 추상적 형태소가 문장내에 실제로 실현된 형태이다. 가령, men은 'man+복수'로 나누어지고, 이때 문법적 표지로서의 '복수' 개념이 모음교체에 의해 men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aught는 'catch+과거'로써 '과거'라는 문법적 형태소가 모음교체에 의해 caught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태소가 홀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단독으로 단어를 구성할 경우에 그것을 '자유형태소'(어휘 형태소)라 하고, 적어도 하나의 다른 형태소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단어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소를 '구속형태소'(문법형태소)라 한다.

books에서 book는 자유형태소, -s는 구속형태소이다. 그리고 형태소를 어근(root)과 접사(affix)로 나누기도 한다. 어근은 대부분 자유형태소이지만 구속형태소도 있다. 접사는 대부분 구속형태소이고, 그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 접사들은 어근에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데 이를 파생법(derivation)이라 한다.

(3) 문장(sentence)

문장이 무엇이야? 하는 정의는 매우 힘들다. 어떤 학자는 문장에 대한 정의가 300가지 이상 된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文章'은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發話體라 하였다. 문법은 이 발화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각종 구조들을 분석하고 記述한다.

어떤 사물이나 상태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命題라 하고, 이 명제는 반드시 두 개의 항인 주부와 술부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문장도 이 명제구조(proposition)에 따라서 분석이 되고 定義되었다. 현재도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 명제구조로 파악하는 학자들이 있다. 문장은 상황에 따라 한 단어로 구성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단어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fine, how fine, how fine day he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ooks and……] Bloomfield는, 문장은 보다 큰 어떠한 구문내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언어 형태라 하였는데, 이는 문장이 가장 큰 단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즉, 문장은 독립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문장이 더 큰 단위를 구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문장이 명제구조와 일치되는 점에서만 옳은 사실로 받아 들여진다. 한

편, 문장은 독립된 전체인 까닭에 결합을 하여도 더 큰 단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문장은 그 하위 단위인 節(clause), 통사구(syntagm), 단어(word) 등으로 분석이 되어도, 상위층위인 단위로 통합되지 못한다. 문장이 이처럼 독자적인 기능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가장 큰 단위는 될 수 있으나, 일정한 분포를 갖는 단위로써 代置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 문장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특수하다. 그런 까닭에 대립의 기능도 갖지 못한다. 그것은 그 나름의 완전한 자유형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장은 소위 랑그(langue)의 단위가 아니라 담화(discourse)의 단위를 이룬다. 그것은 단지 일정하게 배열될 따름이지 통합이나 결합이 되지 못한다. 담화의 단위로써 문장은 독특한 叙法 또는 樣態(modality)를 지닌다. 이 양태의 단일성으로 문장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령 긍정문과 의문문이 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수 없는 것과 같다. “I go to the school and will you come here?”는 비문법적이다. 동시에 의문문과 명령문도 결합이 불가능하다. “Come here and do you go to school?” 그러므로 한 문장은 하나의 서법이나, 양태밖에 가지지 못한다. 談話의 단위로서 문장은 끝없이 새로운 창조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담화[discourse, 또는 text]에 관한 연구는 담화문법이나 텍스트 언어학으로 불리지만, 그것은 文法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4) 單語 分類(品詞 分類)

전통적으로 品詞로 불리는 단어 분류(word class)는 문법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각 분류들을 지칭하는 명칭들 가령,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부사, 관형사 등을 보면, 단어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명사나 동사는 의미적인 定義다. 왜냐하면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동사는 행위나, 동작을 가리킨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형태들을 가리킨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통사적 기능[수식]과 의미적인 기준에 준하고 있다. 접속사는 통사적 기능에 의지하여 정의하면 각각의 단어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들 전통적인 정의의 기준들은 대개 연구자들의 개념적 직관에 의존해 있고, 체계적이고 명백한 형식적 기준에 의거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어들은 통사적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그 형태적 語形關係(계열

관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분류되고, 部類가 결정된다. 그 다음으로 의미적 기능으로써 이들을 보완하여 분류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전통문법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 통사적 기능은 주어진 단어의 분포적 특성을 말한다.

우리는 단어 분류를 크게 ① 개방부류(open class)와 ② 폐쇄부류(closed class)로 나누는데, 전자는 어떤 부류(群)에 속하는 단어의 수가 무한히 많은 부류를 가리키고, 후자는 한정된 수의 단어를 가진 부류를 말한다. 그리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은 개방부류에 속하며,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등은 폐쇄부류에 속한다. 게다가 형태가 변하는 ③ 可變部類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④ 不變部類로 나누기도 한다. 한 부류(무리)에 속하는 단어들도 좀더 엄격하고 좁은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금 ‘하위부류(sub class)’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명사는 유정명사(animate)와 무정명사(inanimate), 헤아릴 수 있는 명사와 헤아릴 수 없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이 하위 구분의 명칭이 의미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각 단어의 의미에 기초한 구분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통사적 관계나 구문내에서의 분포와 통사적 기능에 의거한 것이다. 형태나 구조를 지배하는 일정한 규칙의 관점에서 분류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적 기능이나 정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새 문법 교과서의 理論과 主要 特徵

3-1. 새 문법 교과서의 理論

아직 우리는 국어의 모든 文法現象(통사현상)들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 체계화할 만한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

김민수(1971)의 국어문법론은 전통문법, 구조주의, 기초 변형이론에 의한 통사론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며, 이 홍배(1974, 1975, 1979)의 국어의 변형 생성 문법(I, II, III)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변형생성이론을 국어에 적용해 본 것이다.

1970년대 국어 문법(통사론) 연구의 경향은 ① 서구 이론(주로 변형생성이론)을 해설 소개한 것, ②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국어의 문법현상을 기술한 것, ③ 국어의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일반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 것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②는 언어의 보편성을 국어의 특수성보다 더 중요시한 경우고, ③은 국어의 특수성을 언어의 보편성보다 더 중요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 경향이 1970년대 국어 문법(통사론) 연구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多樣한 통사이론의 영향이다. 초기변형이론, Harris의 이론, Chomsky의 표준이론, Fillmore의 格文法理論, Ross의 履行分析理論, 해석의미론, 생성의미론, 活用論, Montague文法, 사회언어학 등이 수용될 때마다 새로운 학자들이 국어의 통사 記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변형생성이론은 적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서구 이론의 타당성을 우리 국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국어의 문법 기술이 국어 통사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서구의 변형생성文法理論에 의한 국어 文法 研究에서는 ① 主題문제, 格, 보조사, ② 主題化, ③ 再歸化, ④ 被動化, 使動化, ⑤ 否定法, ⑥ 關係化, ⑦ 補文化, ⑧ 接續化, ⑨ 敬語法, ⑩ 時相, ⑪ 叙法·樣態(modality), ⑫ 이야기(discourse, text) 등의 主題別 연구 성과를 가져 왔다. 이들 主題別 연구 성과들이 새 文法 교과서 理論에 반영된 것이다.

이제, 이들 주제별로 이들 문법 요소[문법 범주]들의 문법현상을 일부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문법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 主語 問題[특히 二重主語]

변형생성 이론의 도입으로 논의가 많았던 것은 ‘二重主語’였다. 전통문법에서는 “토끼는 앞발이 짧다”에서 나타나는 주어의 重出을 총주어 [文主, 大主語]와 小主語의 관계로 해석하거나 [유길준, 박승빈, 홍기문], 主語와 叙述語로 쓰인 用言節로 해석하는 [최현배] 것이 보통이었다. 최근에는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의 입장에서 二重主格 및 二重對格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그것을 더 심화시키려는 시도도 보인다.

주어의 重出과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소위 無主語文의 처리다. 생성문법에서는 주어 없는 문장을 $S \rightarrow NP + VP$ 라는 圖式에 따라 기저구조에 주어를 설정케 하였다. 주어의 탈락을 수의적 변형규칙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송석중, 1967] 이러한 방식은 전통문법에서 圖解를 할 때 주어를 보충한다든지 그

자리를 비워 두는 처리와 비슷하다. 이리하여 전통문법에서는 주어 생략 등으로 불러 왔는데, 구조·기능문법에 경도된 문법가들은 오히려 敘述語文이라고 주장한다. [李承旭, 1969] 국어의 구문상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어는 부속성분이며 서술어가 주성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어의 이중 주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령,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처음의 주격은 흔히 다른 형태로 바뀌지만 두번째 주격은 반드시 保全되도록 남아 있도록 된다. 즉 뒤에 오는 주격일수록 保全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代動詞(proverb) 용법은 “Yes, I did”와 “Yes, I want it”에서처럼 지워지는 것이 뒤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어는 이와 반대로 앞에서부터 지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밥을 먹었다” 또는 “밥을 내가 먹었다”에서 앞쪽 것일수록 격이 많이 붙는데 그것들은 쉽게 바뀐다. 그러나 서술어에 가까워질수록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동서양은 문화구조도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내면구조상 격의 순서 배열 문제에서, 영어는 내면구조에서 문법적 주어라고 생각되는 맨 앞의 NP가 분명히 하나 있으니까[두 개 있을 때는 특별한 강조라고 보통 말한다. Him, I like] 語順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해진다. 가령, “나무가 잎이 노랗다”, “나무가 잎이 노랗게 된다”라고 할 때, ‘나무가’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된다’에 대한 주어는 ‘잎이’인 것 같아서 ‘나무가’ 보다는 主語性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나무가 잎이”에서 ‘잎이’는 두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결국 표면구조에서 위치 문제는 국어의 특수한 語順 때문에 영어와는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중주어가 “-이, ~-이”로만 나타나는 경우, “그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에서 ‘-이’는 ‘-으로’ 쓰였던 것이다. 이렇게 兩者가 병용되다가 “-이~이”로 쓰이게 된 것 같다. 그 동기는, 논리적으로는 “A에서 B로 되다”가 정상이겠으나, 그것을 표면구조에서 “-이~이”로 표현하는 구조로 된 것은 대체로 ‘N₁이’가 다른 격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같은 구조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예가 있다. 가령, “내 동생이 생일이 내일이다”에서는 “내 동생의 생일이 내일이다”로 되지만 “내 동생이 내일이 생일이다”라 할 때는 “내 동생의 내일이 생일이다”의 뜻이 되지 않는다. 같은 예로 “나비는 꽃이 좋다”에서도 “나비의 꽃이 좋다”는 不可하다. 그러나 “코끼리가 코가 길다”다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가 가능하

다. 이 점에서 “내 동생이 내일이 생일이다”는 “내 동생은 생일이다”는 “내 동생은 생일이 내일이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語順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것은 “나의 그 여자가 좋다” 같은 예다. 어떤이는 그것도 “나에게 그 여자가 좋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속격만으로 안 될 때는 또 다른 격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속격에는 양도할 수 있는(alienable) 소유 관계와 양도할 수 없는(inalienable) 소유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Fillmore의 속격에 대한 설명] 즉, 코끼리와 코의 관계는 코가 코끼리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 여자가 좋다”는 ‘나와 그 여자’는 성립되지 않는다. 바로 양도할 수 없는 소유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키가 크다”에서는 그런 기준과 관계가 없지만 ‘그 여자의 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추상적인 명사가 뒤따라 올 때는 alienable 이라 볼 수 없지 않는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그가 약점이 잡힌다”에서 이중주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물론 原型이 되는 문장은 “그가 상대방에 약점을 잡힌다”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누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는 문장에서 유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누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는 문장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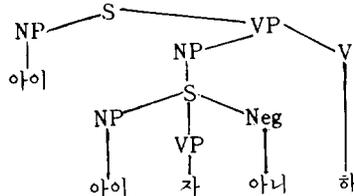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경우 어떤이는 이 文을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로 paraphrase할 수 있으니 ‘얼음이’가 보어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paraphrase 역할을 생각할 때, 어느 文이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다고 해서 패러프레이즈 문의 문법 기능이 그대로 원문의 ‘얼음이’와 패러프레이즈된 ‘얼음으로’를 기능상 동일시하는 것은 양쪽 phrase structure 상에 상당한 비약이 개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에서 ‘얼음으로’가 부자연스런 표현[느낌, intuition]으로 들리며, 언어학자들이 아니고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본다. 단지 논리적으로 볼 때와 표면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을 볼 때를 구별하여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를 보면 “-이~-이” 구조보다 “-이~-로” 구조로 되었다를 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이다. 또 ‘변했다’ 등에서 ‘-으로’가 쓰이는 것도 참작하여 “-이~-로”를 내면구조로 假定하는 것이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2) 否定法 [특히 二重 否定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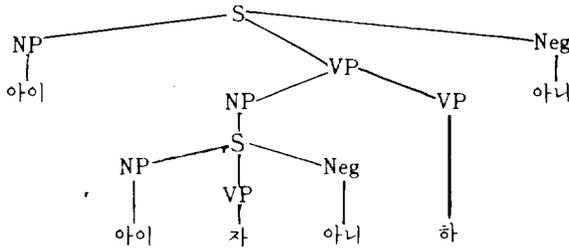
전통문법에서는 박 승빈(1935)을 제외하고 ‘안 잔다’類[제1형 부정법]는 부사에서 부정 부사로, ‘자지 않는다’類[제2형 부정법]는 보조용언에서 부정보조동사 내지 부정 보조형용사로 처리되었을 뿐 兩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어의 변형생성문법가는 두 가지 부정법의 상관관계에 주목을 하여 통사 및 의미상의 여러 문제에 접근을 시도했다.

국어 부정법 연구에서 이 두가지 부정법의 기저구조가 같은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가 상충된 견해였다. 송 석중(1967, 1973)은 제2형 부정법은 명사화표지 ‘-기’를 가진 긍정문에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된다고 하며, 다른 문법가들은 두 가지 부정법의 기저를 하나로 잡는다. 양 동휘(1976)는 부정법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두 가지 부정법이 단일 심층구조에서 유도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생성의미론자의 견해를 지지했다. 임 홍빈(1973, 1978)은 송 석중(1대977, 1978)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펴면서 두 분의 논쟁이 심했었다. 한 마디로 국어 부정법연구는 生成論者와 語彙論者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가 송 석중과 임 홍빈의 논쟁이다. 김 동식(1980)에서는 두 가지 부정법의 동의성과 異意性, 제1형 부정문 형성에서의 제약, 否定素 [아니, 못]의 의미 등이 토박이의 직관과 관련되어 분석되었다.

否定法 중에서 이중 부정(double negation) 문제는 국어의 부정 요소와 영어에서의 부정 요소는 그 방향이 정반대인 것 같다. 가령, 영어의 否定 문제를 Klima는 “(Neg) I……”로 다루었지만, 국어에서는 부정 요소가 제일 뒤에 오는 것 같다. 국어에 있는 문법규칙을 사용하여 국어의 부정을 설명하면, 영어처럼 Neg를 앞에 내놓거나 Neg를 S 뒤에 놓으면 이중 부정(double negation)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억지스런 규칙을 세워 Neg를 VP 속에 놓으면 이중 부정의 설명이 좀 쉬워진다[박 순함]. 그리고 Neg를 앞에 놓던 뒤에 놓던 관계가 없는 것 같다[이 홍배]. 가령, “아이가 안 잔다”는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를 둘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일반적인 규칙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즉 Neg-placement [Neg-정치규칙]으로서 이 규칙은 문장 끝에 있는 Neg를 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Neg-transportation 규칙을 Neg-정치규칙 다음에 오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중부정 문제는 “아이가 안 자지 않는다”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으므로 Neg가 VP에 포함되든지 문장 끝에 오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이 홍배].



그리고 “없는 것이 없다”를 영어의 I have nothing하고 I don't have anything과 견해서 관련지어 보면, “없는 것이 없다”에서 ‘것’은 문제가 많아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한편 “없는 것이 없다”에서 “없는 것은 없다”로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는’의 의미론적 분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이 없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exist here. 즉 I have everything이란 뜻인데, “없는 것은 없다” 하면 ‘나는’ 이 앞에 있어서 I don't have what I don't have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여기서 ‘-이’와 ‘-은’의 의미 차이는 다른 예문의 차이보다 훨씬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지 않지 않지 않았니?” 같은 부정은 한없이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그것이 부정연구에 거론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데 “갔지 않았니?”는 대개의 경우 묻는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원하고 있다. 이 현상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 개의 부정 요소를 포함하는 문장이 의미상으로 긍정이 되는 예가 있다. 즉, “안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세 개의 부정 요소가 있는데도 긍정이 된다. 참고로 “예쁘지 않아”는 語調에 따라 의문과 부정, 부정에 의한 강한 긍정 등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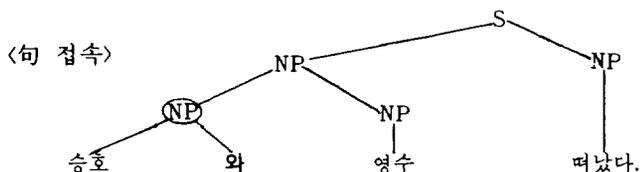
6) ‘것’의 의미기능과 용법에 대해서는 拙稿(1985), 한국어 [것]의 의미기능과 用法, 제주대학교논문집 인문대학편 제20집을 참고할 것.

(3) 接續化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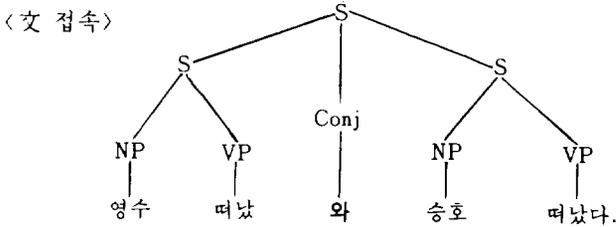
국어에서 複合文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① 접속화(접속어미), ② 관계화(관형사어미), ③ 名詞化(명사형 어미), ④ 補文化(인용의 ‘-고’ 사용) 등이 있다. 이는 전통문법의 관형사형이 關係化, 명사형이 名詞化, 인용의 ‘-고’ 등은 補文化, 접속어미들이 접속화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진 것은 변형생성문법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 다루게 되는 接續化란 전통문법의 접속조사와 대등성 및 종속성을 띤 연결어미에 의한 문장의 접속 과정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면구조를 가진 문장이 내면구조에서는 아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 국어에 변형생성문법을 적용하여 본 시도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와/과’ 접속의 기능을 밝힌 점이다. 생성문법이론은 전통문법의 격조사의 분류에서 접속조사 내지 열거격, 비교격, 동반격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해 온 조사 ‘-와/과’를 접속의 기능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특히 김 완진(1970)은 Lakoff 이론에 따라서,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서 ‘-와/과’가 접속의 기능을 갖되 심층구조에서는 文접속과 句접속으로 구분됨을 주장하면서, 접속의 기능 이외 同伴과 같은 格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도 제기되었다.

이제 ‘-과/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가령, “A와 B가 친척이다”라고 하면 A한쪽만이 B에 대한 친척이 되는 것이니 상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A와 B≡B와 A] 또한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A와 B가 닮았다”에서는 A는 B와 닮았는데 B는 A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A와 B≡B와 A의 현상은 논리학에서는 성립되나 언어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가령, “승호와 영수가 떠났다”는 문장은 애매하다. 왜냐면 승호와 영수가 함께 떠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다른 뜻은 둘이 각각 따로 따로 떠난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는 句 접속의 심층구조를 가지게 된다.



위의 구절표지는 句接續의 한 예다. 동그라미를 친 (NP)를 ‘승호’와 ‘떠났다’ 사이에 이동함으로써 다음 문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영수가 승호와 떠났다”라는 문은 모호하지 않다. 즉 둘이 함께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영수’와 ‘승호’가 따로 떠났을 때의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文字 ‘-와’로 표시되는 것이 실제로는 두 개의 發話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NP₁과 NP₂”가 단순한 句接속에 의한 병렬이 하나 있고, 또 “NP₁과 NP₂”가 文接속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표기상으로 보아서는 兩者의 구별이 없지만, 文接속에서는 “NP₂와 NP₁이”라는 이동이 가능하며 또 그 사이에는 충분한 休止(pause)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반대로 상당한 休止가 인식되지 않을 때는 이동의 불가능한 句接속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B와 만나다”가 존재하면서 “A가 B를 만나다”도 똑같이 존재한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A, B 둘이 동등한 자격으로 우연히 맞부딪친 것을 뜻하고 후자는 A가 B를 찾아 갔다든지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A와 B는 원수다”라면 “B와 A는 원수다”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와 원수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나도 그도 서로 함께 원수다”라는 뜻과 “나는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만 그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우의 차이점이 생긴다. 이때의 속성(predicate) 문제는 의미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결국 그 문장 자체가 애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① “아들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② “아들과 아버지가 닮았다” ③ “아버지가 아들과 닮았다” ④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 등과 비교될 수 있는데 이 중에 ③ 예문은 아주 어색하다. 즉 “아버지가 아들과 닮다”는 왜 이상하게 들리는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 구조상의 이동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진 동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① 예문은 방향이 명확하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좀 바꿔 “형과 동생이 닮았다”와 “동생이 형과 닮았다”라는 예도 성립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同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③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들이 못났고 또 아버지도 못났다는 의미로 보면 이런 문장 ③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요컨대, 논리적으로 영어에서 名詞化하면 depend와 on은 붙어 다니는 것처럼 ‘와’도 꼭 붙어 다닌다. 또 resemble은 국어의 ‘을’이 붙는 것처럼 ‘resemble to him’이라 하지 않고 그냥 resemble이다. 이것은 모두 어휘론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닮다’는 ‘와’와 ‘를’이 수의적으로 붙는다. 그것은 ‘와’가 생략될 수 없는 표지로 수의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와’를 동반격이 아니면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時相[Aspect, 動作相] 문제

동사와 관련된 문법범주인 時相이 있다. 시상은 대부분 시제와 함께 표현된다. 시상은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동작의 수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상(Aspect, 동작상)이란 단어는 원래 “모습, 형태, 보다”의 뜻을 지닌 것이다. 동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時相이다. 그래서 문법교과서에서는 ‘動作相(Aspect)’이란 용어를 채택했다. 많은 동사들이 미완료(imperfect) 동사와 완료(perfect) 동사로 구별이 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어떤 동작의 끝마침 유무로 표현한다. 한편 ‘완료/미완료, 지속/비지속, 순간/비순간’, 등의 動詞相은 대부분 시제 및 서법과 결합되어 표현되고, 時相은 시제와는 달리 發話時間을 기점으로 한 개념이 아니므로 區別을 해야 한다.

국어에서 “-고 있다, -는 중이다”의 형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의미가 비록 시간과 관련되기는 하나, 그것이 문법적인 의미에서의 ‘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사의 의미 자질과 관련되는 사실을 뒤늦게 학교 문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時相의 하위 개념인 진행상, 완료, 단속(치속)상, 전망상(예정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① 進行相: “㉠-고 있다. ㉡-는 중이다” 형식. 이 두 형식은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은 동작성을 적극적으로 띤 동사와만 결합된다. 그래서 동작성이 없

는 ‘알다’ 등의 동사와 결합되기 어렵다. 진행상은 현재 시제와 관련이 있다.

ex) 승호는 밥을 먹고 있다.(먹는 중이다)

② 完了相: “㉠-아 있다, ㉡-아 있었다, ㉢-어 지다” 형식

㉠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 <현재 완료상>

㉡ 마루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다. <과거 완료상>

㉢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

③ 斷續相: ‘-었었-’의 형태

‘-었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 표시와 斷絶의 의미가 있다.

㉠ 작년에는 홍수가 있었다 ← ㉡ 작년에는 홍수가 났다.

㉢ 승호는 극장에 갔었다 ← ㉣ 승호는 극장에 갔다.

④ 持續相: 과거 관형사형어미 ‘-던’이 단독으로 나타나면 동작의 持續을 표시한다. 이에 비해 ‘-었’이 ‘-었’과 결합되면 동작의 완결을 표시한다.

㉠ 이것이 내가 보던 책이다. <지속상>

㉡ 노랑에서 왜적을 무찔렀던 총무공은 전사하고야 말았다. <완료상>

⑤ 展望相[예정상]: 이에 ㉠ 조동사에 의한 우설적 표현 형식, [-게, 되다, -게 하다’ 등]과 ㉡ 연결어미[-고자, -려고, -도록’ 등]의 형태가 있다.

㉠ 우리도 이곳에 살게 되었다.

㉡ 저도 같이 가고자 합니다.

㉢ 아무도 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쳤다.

(5) 時制(tense) 문제

시제 연구가 生成文法, 특히 生成意味論 덕택에 크게 연구되었다. 남 기심(1972)은 국어에서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複文의 시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發話時도 事件時도 될 수 있어 모호하기 때문에 국어에는 시제가 없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과거완료 내지 대과거로 처리되었던 ‘-었었-’을 斷續相이라 하여 相(Aspect)의 일종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남 기심(1976)은 관형관계절의 相은 종결 서술형의 상을 심층구조로 하여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는데, 양 동휘(1978)도 관형절의 시제

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했다.

시제(tense)란 말하는이의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여 事件時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이다. 사건시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며, 發話時란 그 문장을 말한 시간을 뜻한다. 그리하여 ①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先行하며, ② 현재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며, ③ 미래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後行하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기준시를 발화시로 잡은 시제 [즉, 발화시 기준 시제]를 절대적 시제라 하여 이는 어떤 상황의 시간적 전후 위치를 판가름하는 뜻말이 되는 때를 기준시로 하여 이 기준시를 발화시로 잡은 시제로 잡고 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 시제는 기준시를 발화시가 아닌 어떤 자연 다른 상황[전체 문장의 사건시 등]의 것으로 잡은 시제로서 主文 事件時의 기준시제를 뜻한다. 대개 절대적 시제는 종결형 자리에 나타나고,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과 연결형 자리에 나타난다.

가령, “읽은 책도 다시 읽겠다”는

① — 읽은 — # — 읽겠다 — 절대시제(발화시기준)

①은 ‘전에 이미 읽은 책’으로 해석된다.

② — — 읽은
읽겠다 — 상대시제(主文사건시 기준)

②는 ‘현재까지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느 때에는 읽을 책’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 흐르는 물은 맑다.

㉡ 나는 흐르는 물을 마셨다.

이 두 예문에서 ㉠은 일반적 사실을 말하며 [-지시성]의 문이어서 시제가 不分明하며, ㉡은 어느 특정한 사실을 말하여 [+지시성]의 문으로 시제가 분명해진다.

(6) 이야기[談話, Discourse, Text]

‘이야기’란 談話文法(discourse grammar)의 話(discourse) 내지 텍스트문법(Text grammatik)의 텍스트(Text)에 해당하는 말로서 文章(sentence)보다는 높은 문법단위를 말한다.⁷⁾ 그리하여 ‘이야기’란 문장이 실현되는 구체적 맥락의

7) 텍스트(text), 담화(discouoise)는 최현배(1937)의 ‘글월’이나 이희승(1949)의

단위로서 문장이 쓰이는 실질적 상황을 ‘이야기’라 부른다.

문법 記述에서 ‘이야기’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生成文法, 특히 생성의미론의 틀 속에 통합시켜 국어문법을 문장 위주의 문법에서 탈피하여 談話 곧 ‘이야기’ 위주의 문법 기술을 시도한 것이다. 장 석진(1972, 1985)은 話示素(deixis)를 도입하여 ‘이야기’ 문법의 이론적 기틀을 시도했다. 그가 마련한 話構(discourse frame)에 따라 국어 경어법과 문체법과 樣相(modality)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했으며 焦點(information focus)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어 문법에서 ‘이야기’의 개념을 도입하여 ① 문장의 의미나 구조는 문장 하나만 독립시켜 놓고는 정확히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② 화자, 청자의 생각, 앞뒤 문장의 흐름인 맥락(context), 문장이 나타나는 주변의 조건들인 장면(situation) 등이 문장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③ 이러한 연구 분야를 話用論(pragmatics)이라 하는데, 새 문법 교과서에서는 여기 속하는 문법 현상으로 ㉠ 문장 성분의 생략, ㉡ 물음과 대답, ㉢ 지시어의 기능[대응], ㉣ 보조사나 보조동사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야기’의 틀은

(1) 화자 + [문장(주어 + 서술어)] + 청자

(2) 문장(1) + 그러나 + 문장(2) : 비가 온다. 그러나 떠나겠다.

로 나타난다. 문장은 주어, 서술어 등의 필수성분을 중심으로 살이 붙고 가지를 쳐 나가지만, ‘이야기’는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구체적 장면(situation)이 설정된다.

(7) ‘주제-해설’ 구조

일정한 형태소, 단어, 句 등이 일정한 의미를 지니듯이 구조상의 배열에 의한 ‘구조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사 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이 있다. 이것이 소위 ‘주제-해설’ 구조이다. 이 ‘주제

‘이야기’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최현배는 문장을 ‘월’, 이야기를 ‘글월’이라 부르는데 대하여, 이회승은 우리의 문장을 ‘글월’,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 또는 ‘글’이라고 불렀다.

-해설'의 兩分구조는 전통적인 문장의 이원적 분석인 '주부-술부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 주부는 주제, 술부는 해설이다. 주제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축이 되는 요소이며, 해설은 이 주제에 새로운 이야기 내용을 덧붙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화자, 청자 사이에 알고 있는 의사 전달 내용이며 (given), 해설은 거기에 첨가되는 새로운 정보 내용(new)이다.

John ran away 에서 John은 주제, ran away는 해설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주제, 술어가 해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who ran away? -John ran away 에서는 John이 주제지만, what did-John do? John ran away에서는 ran away가 주제가 된다.

'책이 어디 있니?' '책은 책상 위에 있어" 한국어에서는 '-은, -는'이 붙는 요소 '책'이 주제이다. 의사 소통에 있어서 축이되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 해설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이 해설이 주제가 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이루어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의사 전달이 전개되고 담화가 짜여진다.

이상과 같이 국어 문법은 전통문법, 구조문법, 기능문법, 변형생성문법의 모형에 따라 형태론과 통사론의 諸問題들이 발굴되고 여러 해석이 시도되어 왔다. 문법 연구에서 최근의 주류적인 경향은 意味論과 話用論에 바탕을 둔 통사론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국어 문법 연구에 영향을 크게 미친 언어이론은 구조·기술문법과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이다. 이와 함께 生成意味論에 입각한 연구도 있다. 따라서 국어 문법 연구의 경우에도 語彙論者와 變形論者의 대결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서구 外來文法 理論을 적절히 비판·소화하여 국어 문법구조에 적용이 아닌 活用을 할 때 국어문법 구조의 본질이 해명되고, 국어에 바탕을 둔 문법이론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문법 연구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우리 先人들의 연구 업적과 전통문법 이론을 항상 支柱로 삼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 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3-2. 새 문법 교과서의 주요 특징

고교 새문법 교과서[1985]는 1980년대까지 전개·발전되어 온 언어이론과

문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어의 實生活의 측면을 많이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음운론과 품사론에 치중하던 것을 문장 구성의 규칙을 이해하는 통사론 쪽에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에다 문법 연구의 발전적 문법이론의 변화가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새 문법 교과서의 편찬 방향(방법)을 보면,

(가) 문장 중심의 서술을 志向하되, 단어의 설명을 앞세우고 이를 기초로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문장의 서술에서는 ‘이야기’[하나의 문장이 실현되는 구체적 맥락의 단위]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나) 문법 용어는 1963년의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라 9品詞 체제와 용어를 원칙적으로 준수했다. 그러나, 그 용어가 국어의 문법구조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꾼 것도 있다. [예 : 의존명사, 선어말어미, 평서문 등]

(다) 1963년의 학교 문법 통일안에 들어있지 않은 문법 용어는 학계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택했다. [예 : 보조사]

(라) 교과서의 내용은 1982년까지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서 보편적인 것을 두루 반영하였으며, 의견의 구구한 것은 전통문법의 견해에 가까운 것을 수용했다.

이제, 이러한 성격과 편찬 방향(방법)에서 이루어진 통일된 고교 문법 교과서의 주요 특징을 구(종전) 문법과 대비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새 문법 교과서의 주요 특징

새 문법	구(종전) 문법
<p>〈성격〉</p> <p>1. 국어생활[언어생활]을 중심으로 실용성에 바탕을 두어, 문장 구성의 규칙을 형식화하고 이에 관하여 의미 해석을 시도하는 통사론(syntax)에 중점을 둬.</p> <p>즉, 단어의 설명을 앞세우고, 이를 기초로 문장 중심의 서술을 지향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였다.</p>	<p>음운론과 품사론에 치중되어 실용성이 결여됨.</p>

새 문 법	구(종전) 문법
<p>〈단 어〉</p> <p>2. 의존명사 → 자립명사</p> <p>① 뜻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의존명사—자립명사’로 가름</p> <p>② 의존명사의 하위 분류</p> <p>ㄱ. 보편성 의존명사 여러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음. ‘것,⁸⁾ 분’ 등</p> <p>ㄴ. 주어성 의존명사: 주로 주어로 쓰임. ex) 나라 세운 <u>진</u>가 (주어)</p> <p>ㄷ. 서술성 의존명사: 주로 서술어로 쓰임. ex) ~할 <u>따름</u>이다 (서술어)</p> <p>ㄹ. 부사성 의존명사: 주로 부사어로 쓰임. ex) ~하는 <u>들</u> 마는 <u>들</u> (부사어)</p> <p>ㅁ.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오는 명사의 수량을 단위의 이름으로 가리키는 특수성이 있음. ex) (한)마리, (두)말, (세)분</p> <p>※ 특히 부사성 의존명사 ‘듯’은 다음의 세 경우가 있다.</p>	<p>불완전명사 → 완전명사</p> <p>※ 종전에는 ‘불완전명사, 형식명사, 의존명사’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완전-불완전, 의존-자립’으로 가른 것인데 ‘불완전’하다는 뜻이 모호하여 ‘의존명사’로 규정함.</p>

8) 보편성 의존명사 ‘것’은 그 용법이 복잡하다. 그 의미기능과 용법에 대해서는拙稿(1985) 참고.

- ㄱ.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앞의 ‘책’을 지시함>
- ㄴ.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문장의 뜻을 강조함>
- ㄷ. 식물의 분류법은 다윈의

- ① 것
- ② 분류법
- ③ 분류—
- ④ —(방)법

을(를) 따른다. <대용 기능>

※ ①의 ‘것’은 선행어 ‘분류법’이란 단어 전체를 대신하고 있어 ②~④와는 달리 엄격히 말하면 ①의 ‘것’만을 代用語(anaphora)라고 할 수 있다.

새 문법	구(종전) 문법
<p>ㄱ. 어린이가 울 듯 말 듯(의존명사) ㄴ. 물 흐르듯 세월(어미) ㄷ. 씻은 듯 개운하다(부사)</p> <p>3. ‘불완전동사’로 부름 ‘불완전동사’란 활용 방식이 불완전한 동사를 이룸. 즉, 활용형을 고루 갖추어 활용하지 못하는 동사.어미 결합에 제약이 있는 동사. “데리다, 가로다(曰), 달다(요청)” ex) ㄱ. 동생을 데리고 가거라. ㄴ. 동생을 데려 왔다. ㄷ. 동생을 데리라/데린다.</p> <p>4. 재귀대명사, 재귀화 ① 교과서에는 그 현상만 지적되고 이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② ‘앞에 나온 3인칭 주어가 반복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대명사’가 지적되어, 이를 학계에서는 이미 ‘재귀화’라고 부르고 있음. ③ 재귀대명사란 선행하는 동일체를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받을 때 일반 대명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대명사를 이른다. ex) ㄱ. 나는 <u>내</u> 이름자도 모른다. ㄴ. (철수) 그는 <u>자기</u> 이름자도 못 쓴다.</p> <p>※ ‘내, 자기’는 선행하는 명사나 대명사와 동일한 인물을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들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모두 재귀대명사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기’처럼 일반대명사와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고, 늘 선행어를 재귀할 때만 쓰이는 대명사(代用하는 성</p>	<p>불구동사(不拘動詞)</p> <p>※ ‘불구동사’라는 용어는 교육상 신체장애자들을 생각해서 ‘불완전동사’라는 용어로 바꾼 것임.</p> <p>없었음.</p>

새 문 법	구(종전) 문법
<p>격)만을 재귀대명사로 부른다. 이는 앞에 나온 3인칭 주어가 반복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하여 쓰는 대명사로 국어에는 ‘자기’가 쓰임.</p> <p>‘저, 당신, 저희’는 모두 ‘자기’의 變種으로 모두 3인칭이다.</p> <p>5. ‘先語末語尾’로 규정 <선어말어미> 용어에 대하여 ㉠ 허 용 : 안맺음씨끝(비종결어미) → 종결어미 ㉡ 유창돈 : 先行語尾 → 後行語尾 ㉢ 번역용어 : ‘prefinal ending → final ending’의 번역투로 ‘선어말어미’ 용어 사용.</p> <p>※ 허용의 ‘종결어미 → 비종결어미’로 부르면 접속어미와 혼동을 일으키므로 ‘어말어미 → 비어말어미’로 하면 좋겠다(안병희)</p> <p><선어말어미 형태> ① ‘-시-(높임), -옵-(공손), -/는, -았/었-, -겠-, -더-(시간)’의 세 종류만 선어말어미로 국한하고, 사동, 피동, 강세의 ‘-이-, -히-, -리-, -뜨리-’는 파생법의 접사로 처리함. ②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어말어미와 어간 사이에 들어가는 형식 형태소다.</p> <p>※ 사동, 피동, 강세의 ‘-이-, -히-, -리-, -뜨리-’를 파생법에 의한 파생접사로 처리한 것은 ‘-이-, -히-, -리-, -기-’가 파생접사지만 그로 인해 통사구조가 달라지므로 통사론에서 설명하게 되었다.</p>	<p>‘보조어간’ 존칭, 시제, 추측의 보조어간으로 쓰임.</p> <p>ex) 가신다, 먹었다. : : 존칭보 시제보 조어간 조어간</p> <p>※ 종전의 ‘보조어간’이란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흔히 語幹으로 혼동하게 되어 ‘보조어간’ 대신 번역투인 ‘선어말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p>

새 문법

구(중전) 문법

<보충> 語幹과 語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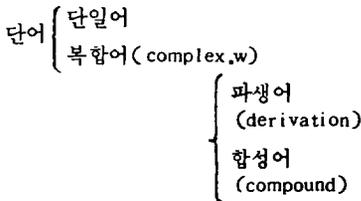
어 간	어 미	
	변하는 말	
변하지 않는 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예쁘-	-겠-	-다
예쁘-	-더-	-냐
⋮	-시-	-고
⋮	-ㄴ-	-지
⋮	⋮	⋮

※ 7. 모든 용언은 이같이 어간과 어미로 나뉘는데 이를 活用이라 한다.

ㄴ. 종래의 부사형어미 ‘-아/어, -게, -지, -고’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부르고 있다.

6. 단어의 형성(word formation)

(1) 단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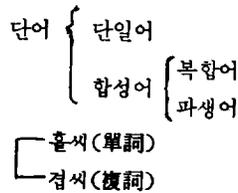


(2) 단어형성법〔造語法〕

파생법 { ① 접두사+어근
 { ② 어근+접미사

합성법 : 어근+어근

※ 7. 종래 ‘轉成’이라고 부르던 단어의 형성법이 파생법 속에서 처리됨.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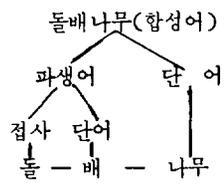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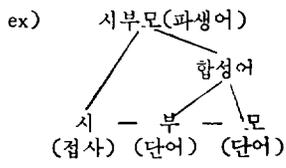
{ 녹은겹씨(융합복합) : A+B → X
 { 가진겹씨(유속복합) : A+B → $\begin{cases} A^b \\ aB \end{cases}$
 { 벌린겹씨(병렬복합) : A+B → AB

새 문 법	구(중전) 문법
<p>전성동사→파생동사: 놓치다. 전성형용사→파생형용사: 슬기롭다. 전성명사→파생명사: 감아지</p> <p>ㄴ. 종래 '복합'이라는 말로 불리던 'Compounding'을 '합성'이란 말로 사용.</p> <p>따라서,</p> <p>복합명사→합성명사: 밤낮, 새해 복합동사→합성동사: 굳세다, 본받다, 시집가다</p> <p>(3) 단어의 구조</p>	

- ㄱ. 새 + 파랗 + 겻 + 지요 + 마는
 (접두사) (어근) (선어말) (어말) (조사) → ㉗조어적 구조
 어 간 어 미 조사 → ㉘형태적 구조
- ㄴ. 부 + 자연 + 슥 + 겻 + 다
 (접두사) (어근)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 → ㉗조어적 구조
 파생 굴절 굴절
 어 간 (선어말) (어말)
 어 미 → ㉘형태적 구조

<보충>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별

합성어 중에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이 힘든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직접구성성분[I. C: Immediate Constituent]분석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다.



새 문법	구(종전) 문법
<p>※ 이 경우는 합성어의 파생과 일치한다.</p> <p>〈보충〉 語根(Root)과 語幹(Stem) 어근(Root) : 단어 형성시 不變要素 어간(Stem) : 活用時의 不變要素 접사(Affix) : 단어 형성시의 可變要素 어미(Ending) : 活用時의 可變要素</p> <p>〈문장구조〉</p> <p>7. 주제어 + 주어 + 서술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주제어) (주어) (서술어)</p> <p>※ 2개(이중주어) 주어의 혼동이 없음. 내용은 3-1(1) '이중주어' 참고</p> <p>8. 문장의 종류</p> <p>(1) 홑문장 : 꽃이 피었다.</p> <p>(2) 이어진 문장 :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ㄴ. 봄이 되면, 꽃이 핀다.</p> <p>(3) 안은 문장 : <u>농부가</u>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p> <p>(4) 안긴 문장 : <u>농부가 비가 오기를</u> 기다린다.</p> <p>cf : 안긴 문장은 節을 가진 문장 구조임. ※ '안긴', '안은'은 학생들에게 은어로</p>	<p>ex) ㄱ. <u>밟</u> <u>는다</u> $\begin{array}{c} R \\ \hline S \end{array} \quad E$</p> <p>ㄴ. <u>밟</u> <u>히</u> <u>는다</u> $\begin{array}{c} R \quad Af \quad E \\ \hline S \end{array}$</p> <p>ㄷ. <u>짓</u> <u>밟</u> <u>히</u> <u>는다</u> $\begin{array}{c} Af \quad R \quad Af \quad E \\ \hline S \end{array}$</p> <p>주어 + 서술절 [주어 + 서술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절 [주어 + 서술어]</p> <p>※ 2개 주어가 있어 혼란이 있었음.</p> <p>(1) 단문 : 꽃이 피었다.</p> <p>(2) 중문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p> <p>(3) 복문 ① 연합문 : 봄이 되면 꽃이 핀다. ② 포유문 : 농부가 <u>비가 오기를</u> 기다린다. (명사절) ※ '비가 오기를'을 節로 규정</p> <p>(4) 혼성문</p>

새 문법	구(종전) 문법
<p>사용되기 쉬우니 용어 지도에 주의.</p> <p>9. 서술의 자리수 개념</p> <p>ㄱ. 한 자리 서술어: 격을 하나만 요구하는 문. 서술어: 하늘이 푸르다(1개).</p> <p>ㄴ. 두 자리 서술어: 격을 두개로 요구하는 문. 서술어: 그는 학자가 되었다(2개).</p> <p>ㄷ. 세 자리 서술어: 격을 세 개로 요구하는 문. 서술어: 나는 너를 조수로 삼는다.(3개).</p> <p>※ 종래 자동사, 타동사, 서술어의 ‘격 지배’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여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말로 문장을 설명함.</p> <p>10. 시제 문제 ‘발화시, 사건시’ 용어 사용 ※ 내용은 3-1(5) ‘시제’ 참조</p> <p>11. 동작상(Aspect) 동작상: 동작이나 사건 속에 시간적 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이는 시제와 별개의 개념이다. cf) 시제는 어떤 동작, 사건, 상태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에 어느 위치(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음. ※ 내용은 3-1(4) ‘時相’ 참조.</p> <p>12. ‘이야기’ 개념 도입 ‘이야기[談話, discourse, Text]란 화자, 청자, 장면, 맥락 등을 고려하여 단 하</p>	<p>없었음</p> <p>없었음</p> <p>종전에는 시제 기준에 ‘발화시, 사건시’란 용어가 없었음.</p> <p>없었음</p> <p>없었음</p>

새 문법	구(종전) 문법
<p>나의 문장이 실현되는 구체적 맥락의 단위임.</p> <p>※ 내용은 3-1(6) '이야기' 참조</p> <p>13. 초보적인 변형문법 이론 도입</p> <p>새 문법 교과서가 chomsky에 의해 주 도된 변형문법 이론이 최소한 문장의 구조 분석에 관한한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 성과를 기초적인 개념이나마 반영하였음. 가령, 안긴 관형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의 문장성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변형이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p> <p>(1) 철수가 <u>지은</u> 시가 일등으로 뽑혔다</p> <p>문장(1)에서 '지은'에 대하여 '시'의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말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는 종전 문법에서는 '지은'이 '시'가를 꾸미는 것으로만 본 것에 대해, (1)의 관형절은 [철수가 지은 시]</p> <p>(2) 철수가 <u>시를 지었다</u>.</p> <p>라는 변형 이전의 문장을 따져 본 것이다. 소위 '기저 구조' 설정이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문(3)에서 밑줄 친 부분의 주어를 찾는 문제도 나오게 된다.</p> <p>(3) 우리는 <u>높이가 1950 m나 되는 현한</u> 한라산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야 했다.</p> <p>여기서 그 답은 '한라산'이 될 수도 있다.</p> <p>※ 변형생성문법의 理論은 지면 사정상 생략하였음.</p>	<p>없었음</p>

4. 지도 방향

지금까지 언급한 새 문법 교과서의 理論을 이해하고 익혀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면 어떨지 하여, 교과서 한 단원을 그 實例로 들어 보기로 한다.

단원명 : 2. 문법과 문법 지식 <교과서 pp. 4-6>

1. 단원학습의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 목표>

- ① 문법이 무엇인가를 안다.
- ② 문법 학습의 意義를 안다.
- ③ 문법 학습의 效용을 안다.
- ④ 국어 문법의 중요한 특징을 안다.

<학습 내용>

- ① 문법의 개념(의미)
- ② 문법 공부의 가치(의의)
- ③ 문법 지식의 활용
- ④ 국어 문법의 특징[우리말의 특징]

2. 단원의 개요

이 단원에서는 문법을 정의하고, 표준어 문법의 가치, 문법 학습의 의의와 그 效용을 밝혔으며, 아울러 우리말의 구조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3. 내용 연구

- 문법의 개념 [교과서 p. 4 : 2~p. 5 : 8]

① 문법의 定義 : 문법은 언어의 질서다.

언어에는 사회 현상이나 자연현상과 같이 일정한 질서가 있다. 이러한 언어의 질서를 일반적으로 文法이라 한다. 우리 말에는 말소리, 단어, 문장, 어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규칙이 있다.

② 표준어 문법의 가치 : 언어 생활의 길잡이로 사회생활에 정상을 유지시킨다. 우리는 우리말 나름의 일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표준어 문법의 가치가 있다.

③ 문법 학습의 의의 : 언어 능력을 길러 준다.

(내용 설명 생략)

○ 문법의 지식 [교과서 p.5~p.6 : 15]

① 문법 지식 :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를 분류하며, 규칙을 귀납하는 능력이다.

(내용 설명 생략)

② 문법의 응용

ㄱ. 옛말과 고전 작품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ㄴ. 표준어 구사 능력을 함양

ㄷ. 고장말 발전의 발판

ㄹ. 외국어 문법에 대한 용이한 이해

(내용 설명 생략)

③ 우리말의 특징

ㄱ. 성분 배열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풍부하다.

ㄷ. 자음에 유성, 무성의 대립이 없다.

(내용 설명 생략)

4. 단원의 정리

(1) 문법의 뜻 ① 문법의 정의

② 표준어 문법의 가치

③ 문법 학습의 의의

(2) 문법 지식 ① 문법 지식 :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를 분류하며, 규칙을 귀납하는 능력이다.

② 문법의 응용 : ㉠, ㉡, ㉢, ㉣ 등.

③ 우리말의 특징 : ㉠, ㉡, ㉢ 등.

5. 요지[結]

언어는 그 언어내의 질서가 있는데 이를 문법이라고 한다. 표준어 문법은 언어 생활의 길잡이로 사회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또, 문법 학습은 언어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그 지식은 문장이나 단어를 분석하고 규칙을 귀납하는 능력을 쌓아 감으로써 체득하게 된다. 문법의 응용을 통하여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표준어의 정확한 구사, 고장말의 발전, 외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은 성분이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배열되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풍부하며, 자음에 유성·무성의 대립이 없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 반드시 한 단원이 끝나면 이처럼 그 단원에 대한 개요 작성[요지]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작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6. 보충심화·학습자료 활용

- 문법의 범위(분야)
- 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 소개
- 언어 사용 능력과 문법 능력
- 우리말의 구조적 특징
- 기본적인 어려운 어휘 풀이 등

맺 는 말

우리는 ‘文法’하면 우선 딱딱하고 흥미 없는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상기 하여, 이제 문법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문법이 아니라, 언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이론이나 규칙을 풀어가는 데 어떤 理致나 물리를 얻게(배우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의 통일된 고교 새 문법 교과서에도 문제점은 있다. 언어 생활의 길잡이로 사회 생활에 실용성을 돕는 측면에서 국어의 언어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최선의 언어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의 전통적인 문법과 調和를 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속 고쳐서 국어 규범 문법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들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순수 학문 분야의 연구가 식어가는, 때로는 등한시되는 차제에 우리들의 성의있는 교육(학습)지도로써 특히,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젊은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고등학교 문법(1985), 문교부
 高永根(1983), 國語文法の 研究, 탑출판사
 _____(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金東植(1980), 現代國語 否定法の 研究, 국어연구 42
 金敏洙(1971), 國語文法論, 일조각
 金完鎭(1970), 文接續의 ‘와’와 句接續의 ‘와’, 어학연구6-2
 南基心(1976), 관계 관형절의 相과 法, 又村 姜龜樹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_____(1978), 국어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朴勝彬(1935), 朝鮮語學, 조선어학연구회
 서정목외 2명(1984), 변형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송석중(1973), Some Negative Remarks on Negatin in Korean. 어학연구 9-2.
- 양동휘(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1-1.
- 李孟成(1965), 變形分析 序論, 언어교육 1-1, 숭대학교 어학연구소
- 李承旭(1969), 主語의 統辭에 관한 考察, 단국대학 국문학논집 3
- 李翊燮(1978), 한국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논총 1
-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 이홍배(1974), 국어의 변형생성문법 (I), 문법연구 1집, 문법연구회
- _____ (1975), 국어의 변형생성문법 (II), 문법연구 2집, 문법연구회
- _____ (1979), 국어의 변형생성문법 (III), 문법연구 4집, 문법연구회
- 李熙昇(1955),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 장석진(1972), Deixis의 생성적 고찰, 어학연구 8-2.
- _____ (1985), 話用論研究, 탑출판사
- 최규일(1984), 한국어 화용론의 記述과 의미 해석, 새결 박태권선생 기념 논총
집
- _____ (1985), 한국어 '것'의 의미기능과 용법,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Andrew Radford(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Textboks in
Linguistics.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illmore(1977), Case for Case Reopened. In Cole & Sadock(1977)
- Jakobson. R.(1968), Linguistics and Poetics, In T. A. Sebeok(ed),(1960)
- Leech(1974), Semantic: Harmonds Worth: Penguin Books.
- Lyons, John(1981), Language, Meaning & Context, Fontana Paperbacks.
- N. A. Chomsky(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eg: MIT
Press.
- _____ (1964), Syntactic Structures, Mouton & Co. The Hague.